

# 조경수목산책 38

## - 붉나무(II) -



임 경 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농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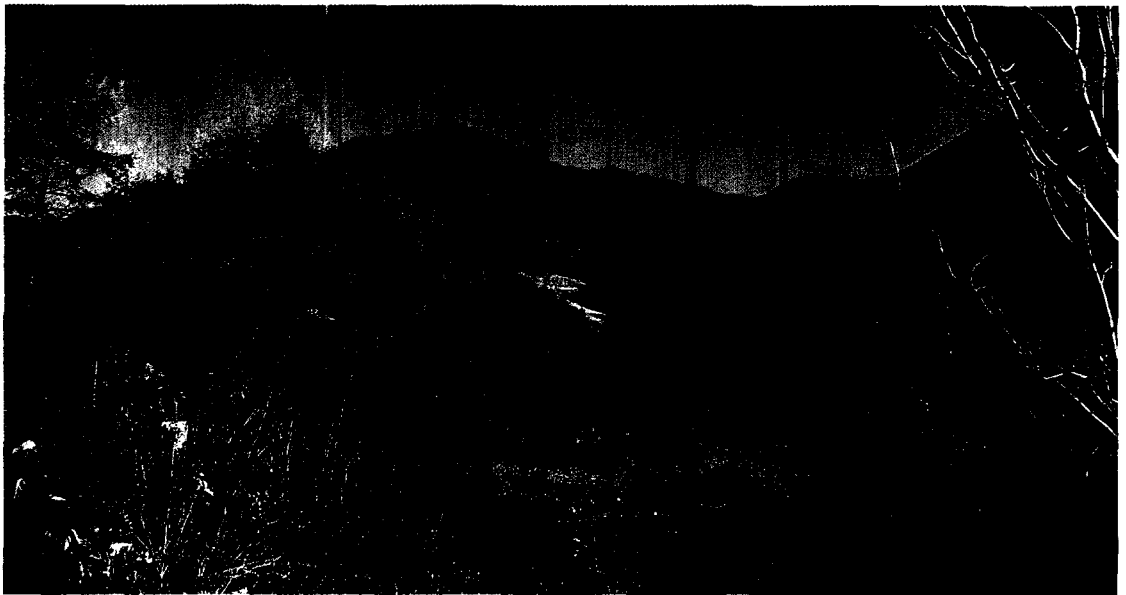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온대지방과 아한대지방에 사는 모든 나무들은 겨울을 대비해서 잎을 떨어뜨린다. 낙엽현상

이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푸른 색 엽록소는 파괴되고 그 대신 붉은, 노랑, 갈색, 분홍 등의 색소체가 드러나서 우리가 말하는 단풍을 만든다. 모든 나무는 단풍을 만든다. 상록수인 소나무도, 잣나무도, 굴거리나무도 단풍을 만든다. 그러나 동백나무, 삼나무, 향나무, 주목 등은 예외이어서 단풍잎을 보기 어렵다. 이들은 외골수인 나무들이다. 그러나 낙엽수종은 모두 단풍을 만든다. 단풍은 아름다우나 우리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무도 있다. 다음에

몇몇 짝어서 말할만한 것들을 들어본다. 대체로 성숙한 나무라야 좋은 단풍을 만든다.

생강나무: 관목상의 키 낮은 나무인데 녹나무과에 속한다. 가을철 산을 노랗게 물들이는 주인공이다. 강원도 오대산 근처 노인봉을 넘어 소금강으로 내려가는 산허리에 많았다. 가을이면 큰 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받아 장관을 이룬다. 꽃 좋고 단풍 좋고 향기 좋은 생강나무이다.

은행나무와 낙엽송: 은행나무는 화석식물로 불리는 오랜 수종이다. 상록성의 침엽수종에 가



▲낙엽송의 가을 바다. 태백산 1997. 10. 22

까우나 이상하게도 낙엽성으로 가을 단풍이 특유하게 아름답다. 반대로 침엽수종이지만 잎이 떨어지는 낙엽송 또한 아름답다. 백두산 고원지대에서 나는 토종낙엽송 이깔나무는 가을이 되면 황금의 바다를 만든다. 가을이 오면 낙엽송 단풍의 바다를 흔히 보게 된다. 여기에 사진으로 보인다.

단풍나무와 그 무리:해인사로 들어가는 참도 주변에서 본 단풍나무 한 그루는 인간의 길을 비춰주는 불꽃같았다. 붉음에서 뽑아낸 붉음의 진수같았다. 강산을 불타게 만드는 당단풍, 신나무, 복자기나무, 단풍나무가 이 수종이다. 외국수종으로는 캐나다 특산 사탕단풍나무를 들 수 있다.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의 상징이면 캐나다는 국기 안

에 단풍잎의 붉음을 넣었을까. 알고도 모를 일이다. 단풍을 우리는 두목(杜牧)의 시에서 표현을 빌려와서 홍어(紅於, 너무나도 붉고 아름답구나 하는 뜻)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곳에 이미 되풀이해 두었다. 홍어, 그것은 또한 캐나다의 국기를 두고하는 말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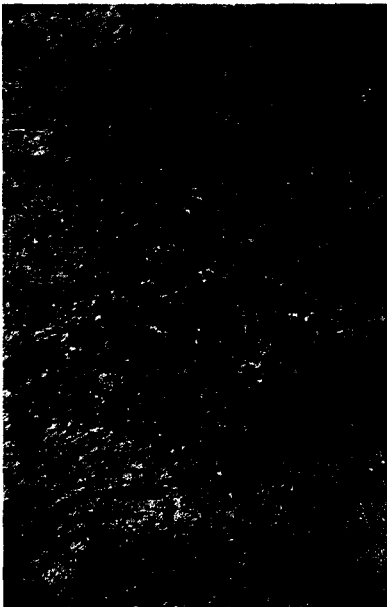
상수리나무:서울~대전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가에 서서 무리를 이루는 상수리나무 단풍이 기가 막힌다. 그 색채는 독특한 물감으로 이뤄진 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상수리나무가 많다. 상수리나무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모두 출품이 될 수 있는 명품들이다.

느티나무:노거목으로 단독으로 곳곳에 자란다. 잎이 붉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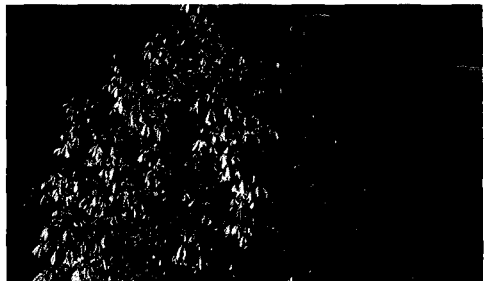
되는 붉은 느티나무가 있다. 나무에 따라 단풍 색깔이 다르다. 노랑, 주황, 붉음, 옅은 초록 등으로 배색되는 단풍은 마을 가운데 서서 온 동네를 황홀하게 만든다.

포플러류:포플러류에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미류나무와 양버들 그리고 사시나무가 있다. 미류나무의 단풍은 내세울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양버들과 사시나무의 단풍은 일품이라고 하기 보다는 명품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곳곳에 자라는 양버들의 가을 단풍은 여기에 사진으로 보였지만 감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같다. 포플러류는 그 열매가 솜털을 가져서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날아가서 물기가 있는 곳에 내려앉으면 그곳을 자리잡아 자라나게 된다. 그러한 적지가 적을지라도

수많은 열매를 내보내다 보면 낮은 확률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선가 생명의 정착을 이룩하게 된다. 이러한 양버들이 우리나라 산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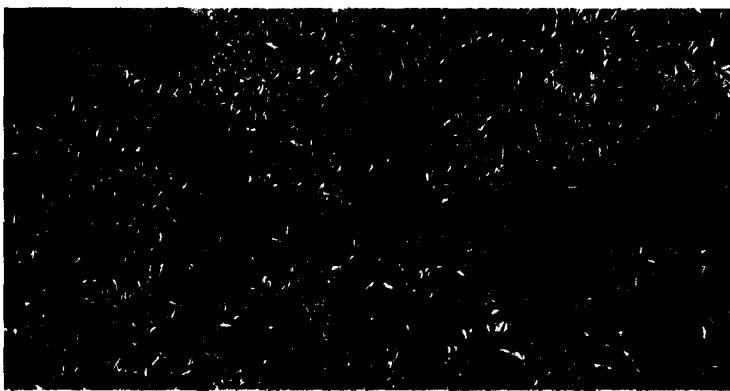
▲느티나무의 가을, 영월 장릉. 1997. 10. 21.  
 ◀달쟁이의 장관, 불영계곡 1997. 10. 23  
 ▶침엽수의 가을색, 여의도 1998. 11. 25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것이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황엽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내다보고 살아왔으며 그것이 가슴속에 각인이 되어 꿈처럼 자리잡고 있다. 유명한 시구(詩句)에 사사록(絲絲綠), 점점홍(點點紅)이 있듯이 나는 포플러의 이러한 경관을 처처황(處處黃)으로 표현해 보고싶기

몽클하게 만든다. 바로 그것이 담쟁이의 잎이고 마지막 잎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붉게 물들인 담쟁이의 잎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닐까. 담쟁이의 단풍을 여기에 사진으로 보이지만 그 붉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수 없이 아름다움을 뽐낸다. 우리가 산야를 거닐다보면 돌에 뿌리를 내려 붉게 채색한 담쟁이의 단풍을 볼 수가 있다. 그 한 사진을 이곳에 제공하였다. 황

다. 이 단풍이 끝나게 되면 찬 바람이 불고 눈발이 휘날리는 때가 오는데 그쯤되면 한 살의 나이를 더하는 쓸쓸함이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여의도의 칠엽수의 단풍보다 더 화려한 것을 다른 칠엽수에서 보지 못하였다. 칠엽수의 단풍은 정녕 자랑거리를 넘어선 것으로 본다.



▲진달래의 가을색, 1997. 11. 5

도 한 것이다. 미류나무의 노란색의 가을단풍은 천지를 창조한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준 값진 선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외국수종이 우리나라 경관을 만들고 있는 대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담쟁이:가을단풍을 수놓는 수종에는 많은 것이 있다. 그것을 여기에 모두들어 설명을 할 수는 없다. 담쟁이는 돌이나 벽에 뿌리를 붙여 가을이 되면 황홀한 붉음으로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오헨리가 쓴 마지막 잎새의 문학작품은 우리의 가슴을

홀하다.

칠엽수:칠엽수는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고 비슷한 것에 마로니에가 있는데 마로니에는 유럽지방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생김새나 생태나 쓰임새는 거의 비슷하다. 칠엽수의 노란색의 단풍은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어 준다.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것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12동 뒤 우리집에 근접해서 자라고 있는 것인데 나는 가을이 되면 남쪽 창을 열고 이 황홀한 칠엽수의 단풍을 내려다 보게 된

붉나무가 주인이 되든 당단풍나무가 주인이 되든 은행나무의 노랑이 주인이 되든 그것에 상관할 것없이 우리나라의 가을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활환경을 금수강산으로 만들고 만다. 필자가 수년전 외설악을 찾은 일이 있는데 그때 개찰구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중년의 외국 신사가 어색한 한국말로서 줄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당신은 무척 행복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당신네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 외국인에게는 설악산의 단풍이 한량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비쳤던 것이 틀림없다.

나는 어느 해엔가 단풍예찬의 글을 썼는데 이것이 조선일보 한 면을 모조리 채웠고 이것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단풍예찬은 지금에 와서도 내가 손을 더 뻗만한 곳이 없을 정

도로 나에게는 만족되는 예찬의 글이었다. 신문의 기사라는 것은 일과성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여기에 그 글을 실어서 좀더 넓은 독자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다음에 나의 단풍 예찬의 글을 이곳에 옮겨본다.

가을이 되어 나뭇잎의 생애가 끝날 무렵 아름답게 변색하는 단풍. 태양의 열기를 마시면서 물질을 만들어 오던 잎 속 엽록소가 생리를 이기지 못해

만든다. 얼마 안가 흙으로 되어 버릴 잎들이 최후를 한없이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도리가 없다.

어떤 사람이「뜰 아래 고운 단풍잎 수북이 깔렸으니 이제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데 넉넉하구나」라고 노래했다. 훌륭한 그 인품이 보이는 듯하다. 느티나무의 떨어진 단풍잎을 모아 빨갭으로 하더라도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름다움은

악산은 백두대간의 중간 쯤에서 바로 단풍의 본바탕을 만들고 있다. 단풍의 대표종들이 이곳에 집결해 있다. 단풍나무, 복자기나무, 산겨릅나무, 피나무, 붉나무, 참나무 등이 가을이 오면 서로 자랑하듯 산을 수놓는다. 그 아름다움은 지나칠 정도여서 옛시조 한 수 안 나올 수 없다.

설악산 가는 길에 개골산 중을 만나



▲상수리 나무의 가을색. 경부고속도로 변. 1974. 10. 27

◀아생적인 신갈나무의 가을. 영월 장릉. 1997. 10. 21

허물어지고 그 안에 숨어있던 노랑과 빨강 등 색채가 노출되면서 단풍이 온다.

은행나무-사시나무-생강나무-포플러 등은 노란 색소가 많아 노랗게, 복자기나무-단풍나무-옷나무-붉나무-화살나무-신나무-당단풍나무 같은 것은 빨간 색소가 많아 붉은 단풍잎으로 된다. 그들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세상을 온통 황홀하게

두고 보아야 한다는 자연관을 우리민족은 가지고 있었다. 도시 안 은행나무 가로수가 노랗게 물들 때 떨어진 잎을 쓸어 치우는 일은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막대로 가지에 붙은 노란 잎을 쳐서 미리 없애 버리는 도시 미화방식은 삭막하기만 하다.

설악산:우리나라에서 단풍으로 가장 이름난 곳은 금강산과 설악산이다. 기후상으로 냉온대지방이 단풍의 명소인데, 설

중더러 물은 말이 풍엽이 어땡더니

이 사이 연하여 서리치니 때맞은가 하더라

설악의 단풍은 내설악이고 외설악이고 모두 좋다. 어느 해인가 나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안고 긴 세월을 이어가고 있는 백담사를 찾고자 백담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 나의 눈길은 한없이 먼 곳까지 뻗쳐가고 있었다. 그곳에 은선도가 나타났다. 선인이 숨어서 살고있는 섬

이란 뜻이다. 계곡물이 흐르다가 양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은선도를 솟아오르게 했다. 이 섬의 단풍은 필설로 표현을 시도할 수 없을만큼 아름답다. 색의 신비요, 신의 걸작이다.

이 섬 안에 선인이 살고 있다는 말은 가히 믿을 만하다.



▲관악산의 가을색. 1998. 가을  
▶화살나무의 불꽃. 여의도 시범아파트 공원. 1998. 11. 25



인공미라는 것이 발달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나는 은선도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잊어버렸다. 인간 이전에 이렇게 황홀한 단풍을 미리 만들어 놓았을 신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은선도를 뒤로 했다. 은선도의 신선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있음이 분명했다.

수렴동계곡의 복자기나무 단풍은 단풍 중의 단풍이다. 잎무리를 걸러서 흐르는 선혈색의 흐름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시 잎 속으로 되돌아가는 듯하다. 한 시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비 갠 뒤 소나무의 푸름을 완상하며 물길 따라 산에 오르네

단풍의 화려함은 선(禪)의 뜻에 이어져 이를 대하니 말문이 닫혔노라

단풍의 미학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복자기나무는 길목 곳곳에 나타나면서 간간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길 앞에서 누군가가「복자가 또 있다」하고 소리친다. 단풍진 이 산길이

끝이 없었으면 하고 빌었다. 옛 사람도 이러한 경우 길에 끝남이 있을까 두렵다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맑은 물소리는 복자기의 단풍을 따라 그침 없이 계곡을 한층 조용하게 만들고 있다.

외설악의 단풍은 웅혼스럽게 솟아오른 영봉을 덮는 장관이다. 또 단풍 생물학의 교과서다. 산마루를 길게 달리는 소나무의 푸름이 단풍의 골짜기를 갈라치면서 단풍의 생태적 배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풍이 든 백두대간을 숨죽이면서 바라볼 수 있다.

어느해 가을 외설악 매표소에서 긴 줄로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다. 뒤에서 외국인 한 사람이 말을 건네왔다.「당신네 나라는 국토가 너무 화려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부러워합니다.」그는「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는 표정이었다. 산을 불타게 하는 게 꽃들이라 하지만 어찌 단풍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단풍불에 화상을 입고 돌아오노라」는 옛노래가 과장만은 아니다.

멀리 돌길 따라 한산(寒山)에 오르니 집들은 흰구름 깊은 가운데 있고

으젓이 발길 멈추고 찬란한 단풍을 보노라니

서리맞은 나뭇잎들이 붉은 봄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더라

이 시는 단풍에 주제를 둔 전무후무하리만큼의 걸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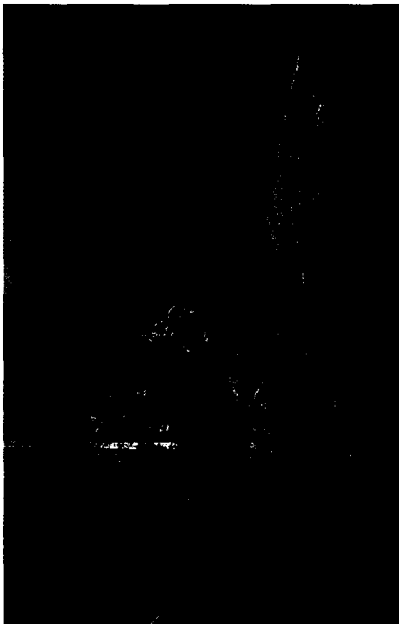
되어있다. 상엽홍어이월화(霜葉紅於二月花)가 바로 그 대목이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은 이 시를 절창하면서 단풍 또는 단풍잎을 홍어(紅於)라 말하고 있다. 음미해 볼 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당나라 때의 두목(杜牧)의 시이다.

지리산: 단풍을 즐길 때면 쫓기는 일정으로는 그 진수를 보기 힘들다. 아름다움은 깊고 오묘한 법. 그래서 느긋한 자세로 바라봐야 한다. 지리산 피아골을 빼놓을 수 없다. 온 계곡을 자욱하게 메운 색채 사이를 뚫고 우리는 걸었다. 계곡물은 소리내어 흐르고 감돌다 떨어지곤 한다. 물에 단풍이 녹아 노랑으로 흐르고 주홍으로 감돌고 붉음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피아골 단풍은 물과 함께 흐른다. 움직이고 있는 단풍을 또 아래로 아래로 흐르고 있는 단풍을 벗삼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선운사: 전북 선운사의 단풍은 태고의 한적함 속에서 우리를 명상 속으로 이끌어가는 신앙 같은 뜻을 담고 있다. 물에 어리는 단풍 색깔도 움직일 줄 모르고 천길 만길의 깊이로 빠져 들어간다. 며칠간 목탁과 독경 소리를 듣고 나면 이제 단풍잎들은 떨어져서 스러져갈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각이 내일 일지라도 오늘을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잎의 여유와 체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딱하고

떨어져갈 그 나뭇잎들의 단풍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서울: 단풍은 먼곳에만 있는 게 아니다. 특히 서울 근교에는 명산이 많고 모두 가을 단풍으로 서울을 찬란한 고장으로 만든다. 관악산 단풍은 큰 화강암의 덩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돌덩어리 사이에 뿌리내릴



▲양버들의 장관. 불영사 계곡. 1994. 11. 8

단풍이 유난히 돋보인다. 지질 시대의 유물과 현재의 생명이 손잡으니 참으로 놀랍다. 온종일 산을 헤매도 봄을 찾지 못했는데 돌아와보니 집뜰에 봄이 이미 와 있더라는 시구처럼 서울 사람들은 가까운 관악산 단풍에 압도되어 불만하다.

불영계곡: 파노라마로 넓게 전개되는 단풍도 좋지만 한 그루 혹은 서너그루가 모여서 보여

주는 단풍 또한 우리의 경탄을 자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어느해 늦가을이던가. 경북 불영사 계곡을 지나 얼마 못가 동해가 나올 즈음 길가에 늘어서 있는 포플러의 노란 단풍에 기가 눌렸다. 진한 하늘의 감벽을 뚫고 오르는 그 색깔은 신의 조화가 아니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서울 가는 비행기를 놓칠망정 나는 이 나무 곁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길을 그대로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은 하늘과 땅을 밝히는 노랑의 화염으로 보였다. 올해 가을에도 그 불꽃은 타고 있을 것이다. 신에 바치는 제물 그것이었다.

금산사: 은행나무 단풍으로 인상적이었던 곳은 전북 금산사 뜰이었다. 온 세상을 노랑이라고 알려주는 듯 했다. 구태어 어려운 불법을 강론하면서 인생의 뜻을 알리려고 할 것 있겠는가. 이 은행나무 단풍을 보면서 쉽게 도의 문턱에 이를 수 있을 것만 같다. 오묘한 천지조화가 던지는 충격으로 마음의 때는 쉽게 씻어버릴 수 있다. 불행하게도 금산사의 이 은행나무는 너무 크고 늙었다 해서 잘라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때로 이러한 일을 한다. 하늘의 지혜와 인간의 도량 사이에는 이처럼 먼 거리가 있지만, 이 가을, 올해도 어김없이 단풍은 찾아왔다. **조경수**